

공동체 소식



대림 주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 입니다.’

대림 주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11월 기도지향

- Jason Savage, 박동희(안나) 가정
김민호, 이지혜(로사) 가정

대림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시작됩니다. 대림 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제는 모든 전례 때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자색 제의를 입습니다.

첫 침례 신심미사

- 첫 목요일 미사(12/6) : 오전 10시
첫 금요일 미사(12/7) :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첫 토요일 미사(12/8) : 오전 10시, 미사 30분 전 목주의 기도

대림 특강

- 일시 : 12/9(일) 중심미사
주제 : “유배시대, 절망과 희망의 노래”
강사 : 주영길 토마스 신부

판공성사

- 12/9 (일) : 1 ~ 2구역
12/16(일) : 3 ~ 5구역
중심미사 한 시간 전, 그리고 미사 후 성사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구역모임 안내

- 1구역 : 김정원 베드로 형제님 덕
3구역 : 정수환 베드로 형제님 덕
4구역 : 민상기 테오판 형제님 덕
5구역 : 문석찬 요셉 형제님 덕
날짜는 12/8(토)이며, 시간은 구역장님들이 추후 통지할 것입니다.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지난 주일, 대림 준비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1년 구독료는 60불입니다.
성탄 대축일 맞이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 바랍니다.

- 12/16(일) 중심미사 후, 성탄 전례 회의가 있습니다.
홀리트리니티 성당의 요청으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91, 210, 167, 166, 92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Rows for 이번주일 and 다음주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이번주일 and 다음주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Names of volunteers.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Names of donors.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1월 18일>
미사참례 : 95명
주일헌금 : \$178
교 무 금 : \$454



대림 1주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12월 02일

미사시간
주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부회장 정수환 베드로
재무 차호섭 요셉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 시기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로운 대림 시기가 되도록 주님께 청하며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홍주성

대전교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내포지역의 중심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홍성읍 한복판에 자리한 홍주성은 그 전체가 순교의 현장이다. 동헌 앞, 옛 저자거리, 홍주 옥 터, 북문 밖, 생매장 터로 추정되는 홍성천과 월계천의 합수머리 부근 등 사방에 순교지가 있다. 홍주성의 4개 문 중 현존하는 조양문을 통해 성 안으로 끌려온 교우들은 시체가 되어 성벽 밖으로 던져졌다. 홍성 본당은 홍성군과 협력해 순교비가 세워진 합수머리 부근 하천부지 일대를 홍주 순교성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예레 33,14-16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화 답 송 :



주 님 제 영 혼 이 당 신 을 우 러 러 뵈 나 이 다 -

-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 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 안을 걷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
○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이오라 죄인에게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겸손한 자 의를 따라 걷게 하시고 겸손한 자 당신 도를 배우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요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정하시며 당신의 계약을 알리시나이다. ◎

제 2 독서 : 1테살 3,12-4,2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루카 21,25-28.34-36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는 대림(待臨)시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면서 발생시킨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 등 천체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기절할 것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구약성서에 실린 유대교 묵시문학이 이미 사용한 것들입니다.(하계 2,6; 요엘 4,16; 집회 16,18; 다니 7,13-14 참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의 묵시문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묵시문학이 이야기한 세상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친숙한 그 문서들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창조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구약과 신약성서의 이야기들은 인류역사의 기원(起源)과 종말(終末)에 대해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또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공동체가 하느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세상의 의미에 대해 그들이 믿고 있던 바를 이야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복음으로 초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 삶의 최종적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한 다음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영접하여 그분의 일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은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것을 영접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교 지도자들이 소외시킨 이들과 어울렸

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병자와 장애인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면서 하느님이 그런 불행으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고치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연민 혹은 불쌍히 여김은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연민은 강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알려주신 그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 두 장이었던 달력이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아서 우리의 아쉬움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쌍히 여김과는 거리가 멀었고, 예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이름마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잘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 빼앗겨서 산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연민이 마음 안에 살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참다운 자유로 보여야 합니다. 땅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낙엽으로 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하느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도록 비는 계절입니다. 세월도 가고, 우리도 갑니다. 하느님의 연민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난 그 만큼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잃어버린 웃음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 15-20번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끝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2. 신앙의 해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2011년 10월 11일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으로 **신앙의 해**(Annus Fidei)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인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하여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끝나게 됩니다.

## 3. 신앙의 해를 2012년 10월 11일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해의 시작은 오늘날 교회 생활의 핵심인 위대한 두 사건의 기념일과 일치합니다. 곧 복자 요한 23세 교황이 1962년 10월 11일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 50주년 기념일이면서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2년 10월 11일 교회에 선사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